

Australian Market Trends for Eco-Friendly Packaging Container

호주의 친환경 포장용기 시장 동향

Writer

하창모

호주 시드니무역관

Contents

- I. 개요
- II. 시장동향
- III.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 IV. 경쟁동향
- V. 유통구조 및 관세율
- VI. 결론

※ KOTRA 글로벌원도우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I. 개요

2015년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힌 채 수영하는 거북이가 발견되었다.

당시 해안 연구팀은 빨대를 빼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에 공개했고,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거북이가 코피를 흘리며 우는 모습을 통해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 사건이 세계적인 친환경 움직임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일까? 플라스틱 포장재·제품의 최종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어 가면서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사진 1] 친환경 용기에 담겨 배달된 온라인 주문음식



[자료 : BioPak 홈페이지]

천혜의 자연을 품은 호주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정부에서도 2018년에 2025년까지 호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재사용, 생분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National

[표 1] 호주 주별 플라스틱 사용 금지 계획

Last Updated 10 March, 2021	ACT	NSW	NT	QLD	SA	TAS	VIC	WA
경량 비닐봉지	○	● TBC	○	○	○	○	○	○
빨대	● 2022			● 2021	○		● 2023	● 2023
음료 찻개	● 2021			● 2021	○		● 2023	● 2023
나이프, 포크, 수저 등	● 2021			● 2021	○		● 2023	● 2023
PE 식품/음료 용기	● 2021			● 2021	● 2022		● 2023	● 2023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 2022			● 2021	● 2022		● 2023	◎ 2026
접시, 그릇 등				● 2021			● 2023	● 2023
플라스틱 면봉							● 2023	
과일, 채소 포장봉지	● 2022							◎ 2026
중량 비닐봉지								● 2023
미세플라스틱 조각								◎ 2026
플라스틱 코팅 커피컵								
플라스틱 1회용 식품용기								

KEY : ○=금지 ●=2년 내 금지 예정 ◎=2년 이후 금지 예정
 [자료 : 호주해양보존협회(Australian Marine Conservation Society)]

Packaging Target 2025’ 계획을 발표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주인들의 친환경 소비 습관이 무너지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는 듯 했지만, 배달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가면서 식품용기, 종이컵, 종이 빨대, 비닐봉지, 종이 가방 등 생분해 및 퇴비화가 가능한 친환경 포장용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II. 시장동향

호주는 2018년 7월부 퀸즐랜드주와 서호주에서 무료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 규제를 시작으로 ‘안티 플라스틱’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9년 IPSO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주 소비자의 74%가 쓸데없이 과도한 포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데 이어, 2020년 CouriersPlease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윤리적(Ethically)이고 지속가능한(Sustainably)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는 호주 시장에서는 제품 품질과는 별개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음식 포장 용기는 최종 소비자에게 음식과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제품으로, 그 시장 수요는 음식 배달시장의 규모로 설명할 수 있다. IbisWorld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온라인 음식 주문 및 배달 앱 Uber Eats, Deliveroo, Menulog, Door Dash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은 지난 5년간 43.8%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계속되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제품이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음식 포장 용기는 최종 소비자에게 음식과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제품으로, 그 시장 수요는 음식 배달시장의 규모로 설명할 수 있다.

IbisWorld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온라인 음식 주문 및 배달 앱 Uber Eats, Deliveroo, Menulog, Door Dash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은 지난 5년간 43.8%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계속되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표 2] 호주의 HS Code 4823.69 수입액 추이(2018~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순위	국가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9
전체		100,225	101,310	97,920	100.00	100.00	100.00	-3.35
1	중국	57,950	63,081	63,774	57.82	62.27	65.08	1.02
2	대만	11,436	13,155	14,481	11.41	12.99	14.79	10.08
3	인도네시아	14,898	11,098	8,757	14.86	10.95	8.94	-21.10
4	베트남	4,799	5,386	5,217	4.79	5.32	5.33	-3.14
5	미국	2,695	2,213	1,744	2.69	2.18	1.78	-21.20
6	태국	1,177	922	772	1.17	0.91	0.79	-16.24
7	사우디아라비아	239	521	674	0.24	0.51	0.69	29.25
8	필리핀	459	1,561	526	0.46	1.54	0.54	-66.31
9	이탈리아	455	437	513	0.45	0.43	0.52	17.38
10	뉴질랜드	1,129	260	465	1.13	0.26	0.47	78.84
11	영국	1,530	818	439	1.53	0.81	0.45	-46.30
12	인도네시아	2,776	1,302	335	2.77	1.29	0.34	-74.28
13	말레이시아	381	290	120	0.38	0.29	0.12	-58.58
14	핀란드	1	7	37	0.00	0.01	0.04	442.89
15	홍콩	74	7	30	0.07	0.01	0.03	312.57
16	일본	33	20	23	0.03	0.02	0.02	12.60
17	대한민국	41	53	14	0.04	0.05	0.01	-73.36

[자료 : Global Trade Atlas]

증가함에 따라 올해까지 12.1%의 추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코로나 봉쇄로 외식업 운영에 제한을 두면서도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도록 했고, 이 점이 코로나 기간에도 음식 배달산업의 붐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2016년 최후발주자로 호주 배달산업에 뛰어든 Uber Eats는 시장 진출 이후 2020

년 8월 사상 첫 103%라는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Menulog는 멜버른 봉쇄기간 동안 54% 주문률 증가를, Deliveroo 역시 같은 기간에만 1,700개 식당이 신규로 등록을 마쳤다. 호주 음식배달산업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3개 기업은 종이 가방부터 수저, 음식 용기 모두 친환경 음식 포장 용기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Ⅲ.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호주의 대한 수입액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뛰어난 중국산 제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듯이 HS Code 4823.69(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유사한 것), 4823.70(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표 3] 호주의 HS Code 4823.70 수입액 추이(2018~2020)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순위	국가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9
전체		24,463	26,785	28,655	100.00	100.00	100.00	6.98
1	중국	14,760	14,986	16,665	60.34	55.95	58.16	11.20
2	말레이시아	4,635	5,482	7,830	18.95	20.47	27.33	42.84
3	뉴질랜드	1,697	1,735	1,522	6.94	6.48	5.31	-12.32
4	덴마크	1,519	1,391	1,361	6.21	5.19	4.75	-2.17
5	태국	409	526	369	1.67	1.96	1.29	-29.86
6	미국	276	235	266	1.13	0.88	0.93	12.92
7	영국	523	1,504	157	2.14	5.62	0.55	-89.59
8	인도	122	91	127	0.50	0.34	0.44	39.54
9	베트남	22	266	107	0.09	0.99	0.37	-59.80
10	캐나다	17	66	97	0.07	0.24	0.34	47.82
11	독일	103	106	45	0.42	0.40	0.16	-57.65
12	일본	46	34	35	0.19	0.13	0.12	3.66
13	대만	51	11	18	0.21	0.04	0.06	66.03
14	크로아티아			16			0.05	
15	필리핀	74	80	13	0.30	0.30	0.05	-83.80
16	스페인	4	11	9	0.02	0.04	0.03	-19.09
17	리투아니아			6			0.02	
18	멕시코	23		5	0.09		0.02	
19	파키스탄		1	3			0.01	
20	남아공	3	1	2	0.01	0.00	0.01	88.80
21	대한민국	11		1	0.04	0.00	0.00	74.76

[자료: Global Trade Atlas]

제품) 두 제품 모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제품이 뛰어나다기보다 정부 규제와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제로 플라스틱을 향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현지 유통사들이 중국, 동남아에 위치한 제조사들과 빠

르게 파트너십을 체결해 현지 물량 공급을 늘린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IV. 경쟁동향

호주 친환경 식품용기시장에는 시장 점유 1위 기업이자 최근 유럽, 싱가포르 시장에도 진출한 BioPak

부터 경쟁력을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우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계 유통사 PAC Trading까지 100여개 수입·유통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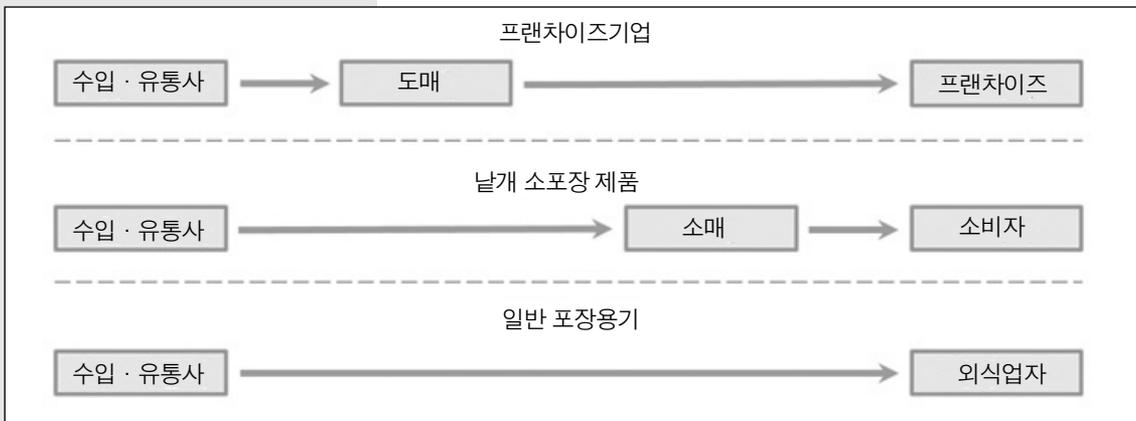
V. 유통구조 및 관세율

맥도날드와 같이 특정 외부 구

[표 4] 호주 친환경 식품용기 제조사

기업명	Bio Pak	Premier Northpak	FPA Australia	PAC Trading
설립연도	2006년	2004년	2007년	2009년
웹사이트	www.biopak.com.au	www.premiorthpak.com.au	www.fpaust.com.au	www.pactrading.com.au
주소	SE 202 59-75 Grafton Street, Bondi Junction, NSW, 2022 Australia	316 Horsley Rd, Milperra, NSW, 2204 Australia	151 Mulgul Rd, Malaga, WA, 6944 Australia	5/36 South Street, Rydalmere, NSW, 2116 Australia
대표상품				

[그림 1] 호주 친환경 포장용기의 유통구조



[자료 : KOTRA 시드니무역관 정리]

매기업을 전담으로 두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몇몇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주 음식점은 수입·유통사로부터 온라인 구매를 통해 직접 물건을 주문·배송 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음식과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생분해 및 친환경 제품의 경우 관세 및 특별한 수입 장벽은 없으며(한-호 FTA 적용 관세율 0%) 호주에서 인증 취득은 필

수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 제품과의 차별성과 향후 호주 친환경 제품시장의 확대에 의한 진입 장벽 생성에 유의해 시장 진출 전 인증 획득 및 친환경 증빙 서류들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

호주 최대 친환경 포장용기 수입·유통사인 BioPak의 Gary Smith 대표이사는 KOTRA 시드니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영향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상반기는 커피 전문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종이컵은 30%까지 매출이 감소했으나 오히려 테이크아웃 포장 용기는 30% 이상 판매가 증가했다. 현재는 평년대비 2배 가까이 온라인 주문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제조사에서 호주 친환경 인증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고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표 5] 호주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정보

인증명	AS 4736-2006(Australian Commercial Compostable)	AS 5810-2010(Australian Home Compostable)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 유럽 기준(EN 13432)과 내용은 비슷하거나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정 내 퇴비화' 관련 인증이라는 점 외 동일
인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화(180일 이하 소요) 생분해성 재료를 최소 90% 이상 사용해야 함 · 최소 90% 이상이 12주 이내 2mm 크기 미만의 조각으로 분해되어야 함 · 썩는 과정에서 독성의 영향이 없어야 함 ·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없어야 함 ·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최소 50% 이상의 친환경(Organic) 재료를 사용해야 함 	
인증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i Global(www.saiglobal.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품질 보증 및 인증 서비스 대행 - 한국 사무소 운영 · Australasian Bioplastics Association(www.bioplastics.org.a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바이오플라스틱협회 · 인증기관 	

[자료 : KOTRA 시드니무역관 조사 및 정리]

PFAS(독성 불소화 화학물질) 미검출 테스트 내역과 물, 코팅제를 포함한 주요 성분의 화학물 증빙까지 철저히 준비한다면 유통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마케팅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VI. 결론

호주에서 친환경 포장용기는 단순히 디자인적 요소를 넘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기업들이 앞장서서 친환경 패키징, 포장 용기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친환경 포장 용기 시장의 지속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여 철저한 호주 진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하창모 호주 시드니무역관은 “여전히 낮은 투입 비용을 무기로 중국산, 동남아산 제품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의 뛰어난 디자인과 기능적 측면에 현지 유통사가 원하는 마케팅 요소가 추가된다면 국산 친환경 식품 포장용기의 호주 시장 진출도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Bio PBS 종이컵, 쌀 빨대 등 국내기업에서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차별화 신제품들이 상업화에 성공했다. 새로운 한국산 친환경 포장재, 포장용기의 호주 상륙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